

국민 4명 중 1명 '외롭다'



▲ 사진=shutterstock

한국 국민 가운데 여성, 저소득, 고령자일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시스'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갈등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22.3%가 '외롭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2013년 28.9%에 달했던 사회적 고립감은 2018년 16%까지 줄다가 2019년부터 다시 상승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54.6%가 외롭다고 응답했고, 100만~200만원 미만은 31.3%, 200만~300만원 미만 26.0%였다. 300만~400만원 미만에서는 19.5%로 줄었고, 500만~600만원 미만은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이 14.6%로 더 낮았다

여자(23.4%)가 남자(21.2%)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더 느끼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 61.6%로 전년 대비 0.9% 상승했다. 삶의 만족도 역시 여성(62.1%)이 남성(61.0%)보다 약간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400만~500만원 미만이 66.6%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은 38.8%에 불과했다.

한편 국민들은 사회집단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 중 보수와 진보 간 정치적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4%가 '보수와 진보' 집단 간 사회갈등 정도가 심하다고 했다.

'한류' 저작권, 사상 첫 흑자

지난해 한국의 문화예술저작권 국제수지가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흑자를 기록했다. BTS(방탄소년단)를 비롯한 K-팝과 넷플릭스의 K-드라마 등 '한류'의 인기에 힘입은 결과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이 타격을 받으면서 산업재산권 수지가 부진해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커졌다.

지난 23일 '머니투데이'가 따르면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0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8억7,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13억4,000만 달러 확대됐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의 첫 흑자에도 불구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적자에 주로 기인했다.

문화예술 첫 흑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영상과 음악 관련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예술저작권은 총 1억6,000만 달러 흑자를 보여 사상 최초

흑자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악·영상 부문에서 1억9,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한류에서 K-팝 등 BTS 관련 수출이 있었던 것 같다"며 "국내 드라마 제작사가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되며 글로벌 플랫폼에 수출하게 된 점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은 흑자를 보인 반면 산업재산권(-35억 3,000만원)은 적자가 컸다. 특히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서 적자폭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22억8,000만달러) 등에서 기인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기업과 해외 현지 법人间 거래 쪽에서 많이 발생한 적자폭"이라며 "국내 대기업이 베트남 등에 생산하는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면서 적자폭이 늘어났다"며 "해외 현지 법인의 생산이 다시 회복되면 지식재산권 수출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적자폭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간 거래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준생 83% "취업 포기 내 탓 아냐"



▲ 직업박람회 모습. 사진=유튜브(강남구청) 캡처

통상 취업 실패에 대한 이유를 '내 탓' '스펙' 등 자신에게서 찾던 취준생들이 취업 실패의 이유를 사회에서 찾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장기화 하면서다.

지난 25 '경향신문'은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1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취포자(취업 포기자) 증가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사회적 상황의 아쉬움'을 꼽은 응답자들이 6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채용 기업의 여건'이 19%로 그 뒤를 이었고, '구직자 개인의 문제'라고 취업 포기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답변은 16.7%에 불과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 포기를 고려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84.9%가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채용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31.7%)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취업이 너무 막막해서' (22.2%), '희망 기업에 올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어서' (17%), '채용 기업들의 처우가 좋지 못해서' (13.9%)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이유가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00대 기업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가 166만4,900여명(2019년)에서 지난해 165만2,100여명으로 1년 새 약 1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국민연금 신규 가입은 '취업', 가입 상실은 '퇴직'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전체 가입자 수가 줄었다는 것은 곧 취업 시장이 경색됐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주택, 아파트, 상가, 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뉴포트비치 주택 방5 화3 2,300 sf 최상의 위치 학교, 도서관 근처 넓은 Remodeled 부엌 교통 편리 Many more \$1,695,000	빌라팍 주택 방5 화3 3,145 sf 조용한 분위기, 이웃 Vaulted Ceiling 넓은 대지, 좋은 학교 Remodeled 화장실 \$1,675,000	터스틴 주택 방3 화2 높은 천장, 넓은 정원 마켓 근처 좋은 학교 \$798,000	로스알라미토스 주택 방3 화1.5 부엌, 화장실 리모델링 창문, 그라지 리모델링 최고 학교 최고 주거 환경 교통편리 \$875,000	애나하임힐스 주택 방5 화4 2,863 sf 부엌, 화장실 리모델링 많은 업그레이드 최고 선호 동네 산근, Nature Park \$1,250,000	올바린다 주택 방4 화3 2,821 sf 1989 년생 넓은 Living Space 넓은 정원 넓은 정원 교통 편리, 학교 좋음 \$1,065,000	애나하임 주택 방5 화2 2,200 sf 넓은 정원, Addition가능성 많음 조용한 동네 \$799,000
늘워 3유닛 년 수입 \$66,300 방3 화2X1 방2 화1X2 넓은 파킹, 교통 편리 낮은 렌트비, 가능성 높음 100% Occupancy \$1,099,000	플러튼 4유닛 년 수입 \$93,000 방2 화1 X4 대학 근처, 리모델링 Strong Rental Area 100% Occupied \$1,450,000	부어나팍 4유닛 년 수입 \$72,552 방3 화2 X1 방2 화1 X3 대학 근처, 편리한 위치 다운타운, 리모델링 100% Occupied \$1,450,000	다우니 3유닛 년 수입 \$72,000 방3 화2 X1 방2 화2 X1 방2 화1 X1 넓은 방, 좋은 위치 쇼퍼센터, 프리웨이 Many Upgraded \$1,599,000	헨팅턴비치 4유닛 년 수입 \$116,400 1972 년 생 방3 화2 X1 방2 화2 X2 방2 화1 X1 좋은 조건/좋은 학교/위치 100% Occupied, 인기매물 \$1,595,000	터스틴 4유닛 년 수입 \$85,860 방3 화2 X1 방2 화2 X2 방2 화1 X1 No Vacancy, 차고 편리한 위치 \$1,450,000	애나하임 6유닛 년 수입 \$128,304 Cap 4.52% 방2 화2 X6 좋은 인컴, 좋은 구성 요소 1031 Exchange \$2,045,000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